천년을 세우다
모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03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9월 14일)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모든 테러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2024 한-미 전통불교문화교류를 위해 10월 8~1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교류단이 방미 첫 일정으로 9·11메모리얼파크를 방문, 테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했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9·11 희생자들이 영원한 평온 속에 있기를 기도했다. **사진 제공=조계종 홍보국**

진우 스님 "'세계명상의 날' 제정합시다"

조계종, 10월 8일 뉴욕 유엔 방문
'세계명상의 날' 제정 제안서 전달
첫 일정, 9·11 메모리얼파크 참배
9·11테러 희생자들 넋 기리며 헌화

미국 뉴욕=임은호 기자

2024 한-미 전통불교문화교류를 위해 10월 8~1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조계종 교류단이 '세계명상의 날' 제정을 바라는 한국불교계의 제안서를 유엔에 전달했다.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과 조계종 기획실 홍보국장 덕안 스님은 10월 8일 오전 9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 산하 문명연합의 니할 사드 이사에게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번 제안은 지난 9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제선명상대회에 참석했던 세계적인 명상지도자들도 함께했다. 우파야 선센터 설립자 로시 조안 할리팩스, 마인드&라이프 의장 툽텐 진파, 전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차드 멩 탄, 마인드풀니스 인 벨 편집장 팝루 스님, 평화와 교육팔모센터 설립자 직메 린포체, 명상위원회 위원 미산 스님이 동참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에게 전해진 제안서에는 진우 스님의 '모든 사람을 위한 지속 가능한 평화와 행복' 그리고 선명상 세계화 염원이 담겼다.

진우 스님은 제안서에서 먼저 "오늘날 세계에서 경제적 불평등, 환경 위기, 사회적 및 정치적 긴장이 계속 심화됨에 따라 우리는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가득찬 시대에 살고 있다"고 안타까운 현실을 전했다.

진우 스님은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이스라엘 갈등, 미국 대선, 영국 폭동 등과 같은 투쟁은 우리 모두의 삶에 상당한 물질적, 심리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기술은 가까운 곳과 먼 곳의 혼란에 대한 인식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양극화와 분열을 심화시켰다"면서 "세대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잘못된 정보, 조작된 이미지의 엄청난 홍수에 직면한 이 새로운 시대의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지속 가능한 평화와 행복'을 이루는 길은 단순히 기술적, 제도적 발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적 성찰에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 스님은 그 대안으로 '명상'을 제시하며 '세계명상의 날' 제정을 정중하게 제안했다.

이와 함께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교류단은 방미 첫 일정으로 9·11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세계평화를 발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우 스님과 일행들은 현지시각으로 10월 8일 오후 4시 9·11메모리얼파크를 방문, 테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했다. 9·11메모리얼파크는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 건물에서 발생한 테러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그 자리를 추모공원으로 남겨둔 곳이다. 미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테러, 전쟁, 민간인 피해 등의 대명사가 됐다.

이날 방문은 종교, 문화, 정치 갈등으로 발생된 테러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세계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한편 부처님 제자로서 중생 행복과 평화 증진 기여를 다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 도착한 진우 스님은 묵념 후 9·11메모리얼파크에 대한 설명을 듣고, 테러로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렸다. 진우 스님은 "희생된 이들에 대한 기억이 우리 모두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면서 "이곳은 과거의 슬픔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과 화합을 위한 길을 찾을 수 있는 장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존귀하며 그 속에서 사랑과 평화가 싹튼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생명의 존귀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고"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마지막으로 9·11 희생자들이 영원한 평온 속에 있기를 기도했다. 그러면서 "희생된 분들에 대한 기억이 우리에게 늘 따뜻한 마음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세계문화유산 통도사 이제는 메달로 만나요

조계종 · 조폐공사, '천년고찰 9곳' 기념메달 판매

통도사 금강계단 첫 번째 선봬
불교문화유산 보호, 홍보 기획
본지 쇼핑몰 '마하몰'에서 판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하 산사)'을 기념메달로 만날 수 있게 됐다.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는 "조계종과 협업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9개 사찰의 주요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한국의 천년고찰 시리즈' 기념메달을 기획했다. 첫 번째로 '통도사 금강계단' 메달은 10월 10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통도사는 국보로 지정된 조선 중기의 대표적 건축인 대웅전과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담고 있는 금강계단을 비롯하여 탑, 석등 등 3만여 점의 문화유산을 보유했으며, 201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통도사 금강계단 기념메달'의 앞면에는 대웅전과 함께 국보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며 통도사 창건의 근본정신이 깃든 금강계단의 전경을 넣었다. 금강계단의 '금강'은 금강석(다이아몬드)처럼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계단'은 계율을 받는 청정한 장소를 뜻하는 것으로 금강계단은 자장 율사가 646년 전국 스님들이 계를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한 것이다.

기념메달 뒷면에는 '금강계단' 사리탑의 형상을 확대해 자세하게 표현했고,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靈鷲)' '총림(叢林)' '통도사(通度寺)' 문구와 공사 홀마크를 새겨넣었다.

메달은 금메달(31.1g)과 은메달(31.1g) 두 가지로 제작됐으며, 금메달은 449만9000원, 은메달은 19만8000원에 판매된다.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조계종과의 협업으로 한국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어 뜻 깊다"며 "판매 수익금 일부는 불교문화유산 보호에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계종과 한국조폐공사가 협력해 제작한 '통도사 금강계단 기념메달'은 불교계에서 현대불교신문사 마하몰을 통해 판매한다. 또한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정현선 기자

"10·27법난 개인 보상 위해 法개정 필요"

10·27법난 피해자회 토론회서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10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3차 진실의 기억 피해자 보상 학술토론회'에서 '10·27법난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법률에 명시된 10·27법난 피해자들의 구제 방법은 명예회복에 그친다"며 "5·18광주운동 피해자와 제주4·3사건 희생자들의 피해 구제 방법이 명예회복, 진상규명, 실질적 보상인 것과는 크게 다른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조차 법률 유효기간 내 실행이 어려워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10·27법난피해자모임은 결의문을 발표하며 법난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결의문에는 △정부의 공식 사과 △피해자 개인에 보상 △군경합동수사반의 조사 서류 공개 등의 요구가 담겼다. 김가령 기자

